

울산광역시 시정소식지

# 우리울산

2026년 봄호 Vol. 19



울산광역시 시정소식지

# 우리울산

2026년 봄호 Vol. 19

발행인

울산광역시

제작부서

공보담당관

편집위원

울산광역시 정준혁

울산광역시 박하얀

발행처

울산광역시

발행일

2026년 3월 31일

발간등록번호

ISSN 2982 - 7310



오디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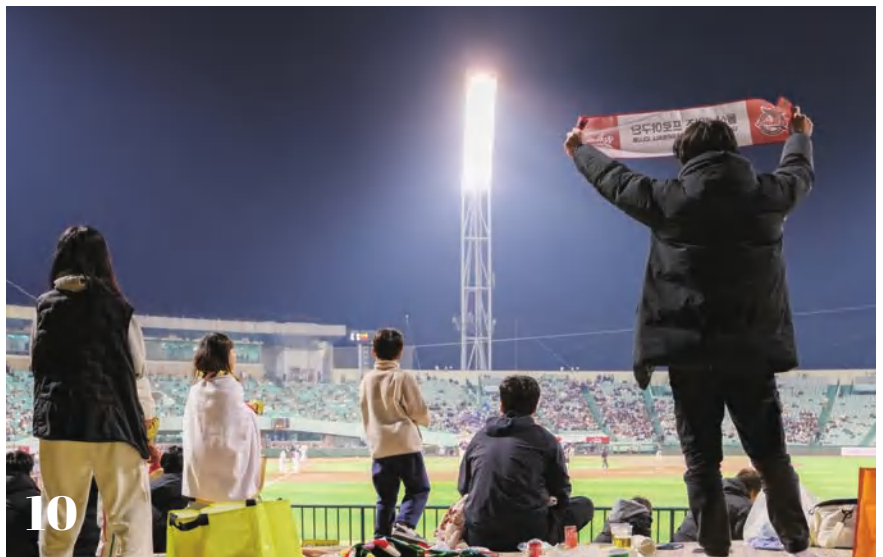
e-Book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촬영하시면  
더 편리하게 '우리울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Cover



울산웨일즈 홈 개막경기가 3월 20일  
문수야구장에서 열렸다.





24

**기획특집**

04  
파도를 넘어 승리로!  
울산의 심장을 깨운  
‘울산웨일즈’의 화려한 비상

**울산산책**

16  
산업화 시대의 향수  
울산 원도심을 걷다

**요즘울산**

24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웃는 도시  
울산에 어서 오시개

**시장사람들**

34  
반백 년 울산의 맛과 멋을 품다  
신정시장

**울산의발전**

40  
실감 영상으로 즐기는 울산의 진면목  
라이징 포트

42  
과거 위에 미래를 세우다  
중하이노베이션센터

46  
특특뉴스

50  
독자마당

51  
구독신청 | 구독후기 | 작품투고  
울산사랑퀴즈



36



40



42



파도를 넘어 승리로!

# 울산의 심장을 깨운 '울산웨일즈'의 화려한 비상



지자체 주도 시민구단 '울산웨일즈'가 3월 20일부터  
문수야구장에서 역사적인 첫 홈 개막 3연전을 치렀다.  
120만 울산 시민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야구 도시 울산'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감동의 현장을 함께 느껴보자.







1



2



3

1. 선발투수 오카다 선수의 투구. 2. 울산웨일즈의 두번째 투수 고바야시 선수가 홈플레이트를 향해 운몸의 에너지를 싣고 있다.  
3. 장원진 감독과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응시하고 있다. 4. 타석에 선 최보성 선수. 5. 포수 홀 선수가 다음 타석을 준비중이다.



**“절실함이 우리의 무기” 39명의 ‘김동엽’이 뭉쳤다**

울산웨일즈 선수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가득하다. 부상과 방출의 아픔을 딛고 다시 배트를 잡은 거포 김동엽, 7번째 유니폼을 입은 25년 차 베테랑 고효준 등 저마다의 이유로 ‘새로운 기회’를 잡은 39명의 선수가 모였다.

김동엽 선수는 “울산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인간승리’의 드라마를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장원진 초대 사령탑 역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걸 선수단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며 “선수들의 성장이 곧 시민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울산 김동진 단장은 “오랜 시간 프로야구단을 기다려온 울산 시민들께 수준 높은 경기와 즐거운 관람 문화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문수를 가득 채운 7299명의 함성**

롯데 자이언츠 2군과의 개막 3연전 첫날, 울산 문수야구장 일대는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축제 분위기로 들끓었다. 구단 로고를 얼굴에 새기는 페이스 페인팅 부스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긴 줄을 섰고, 푸드트럭과 플라마켓은 방문객들의 오감을 즐겁게 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역대 KBO 퓨처스리그 단일 경기 최다 관중인 7299명이 운집했다. 관중들은 ‘울산웨일즈’가 새겨진 수건을 들고 열띤 응원을 펼쳤다.



사회인 야구인입니다. 이번에 울산팀이 생겨서 아들에게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왔는데 참 좋습니다. 잔디석이 경기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신주호 올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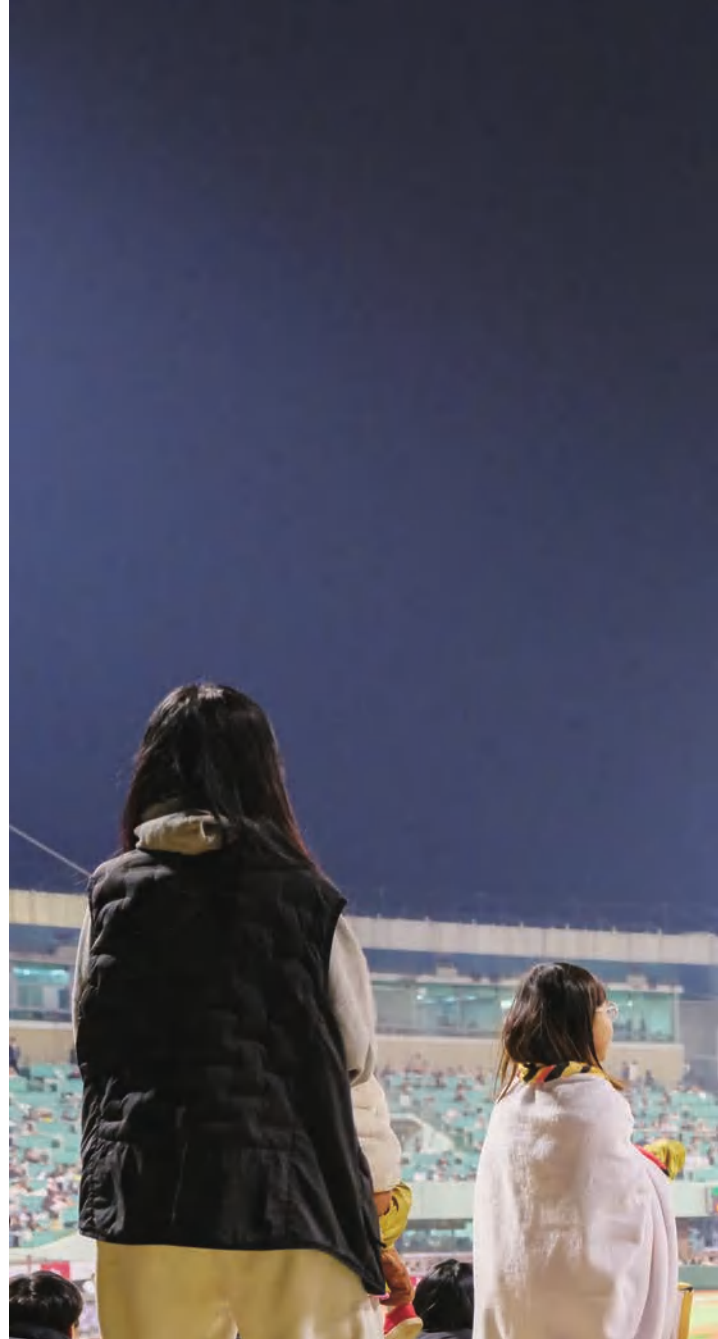
재미있어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직 실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신규민 초3. 올주군



원래 롯데 팬이었지만 이제 우리 팀 울산웨일즈를 응원할 거예요. 나중에 유니폼도 맞춰입고 응원할 겁니다. 역쉬! 꿀잼도시 울산입니다~  
울산대학교 건축과 학생들



1. 외야 잔디석에서 응원중인 가족.
2. 관중석의 응원 열기.







1. 울산웨일즈의 승리를 바라는 관중들의 열띤 응원.
2. 김제현 응원단장과 응원단의 리더로 문수야구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3. 울산웨일즈의 마스코트인 귀여운 범고래 '오르카'

### 완벽한 준비... 마스코트 '오르카'와 든든한 스폰서십

울산웨일즈는 겉모습만 갖춘 팀이 아니다. 마스코트 '오르카(ORCA)'가 등장과 동시에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의 상징인 범고래를 형상화한 '집요한 승부사 오르카'는 공모전 대상을 받은 디자인답게 강인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전망이다. 울산웨일즈는 글로벌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스파이더(SPYDER)와 토탈에너지윙활유(STLC)와 공식후원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했다. 선수단 유니폼에는 '스파이더'와 '토탈에너지스 퀵츠'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동안 퓨처스리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응원단도 선보였다. 김제현 단장은 "팬들이 항상 즐겁고, 다 같이 따라 할 수 있는 응원을 하려고 합니다. 선수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응원을 계획 중입니다"라고 전했다.

울산웨일즈는 퇴근길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홈 경기 30경기를 오후 6시 30분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편성으로 관람 편의를 극대화했다.

### 개막시리즈 이후 연승 질주

홈 개막전 3연전의 승리를 내준 울산웨일즈는 실망할 겨를도 없이 이후 치러진 경기에서 5연승을 거두며 KBO 퓨처스리그에 신생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패배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다시 승리로 일궈낸 감동의 여정, 울산웨일즈가 시민들과 함께 써 내려갈 승리의 기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 집요한 승부사 오르카 orca

오르카는 단순히 응원하는 마스코트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협동으로 사냥하듯, 조직력과 전술로 승리를 설계하여 그라운드 위에서 전략과 흐름을 만들고, 집요함으로 승리를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 선수단 소개



감독  
**장원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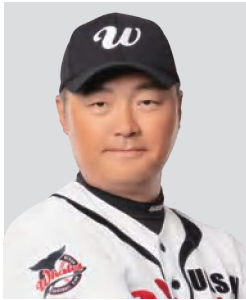
수석코치  
**최기문**



코치  
**박명환**



코치  
**정재복**



코치  
**김대익**



코치  
**황선일**



코치  
**임수민**



코치  
**안상준**



트레이너  
**강민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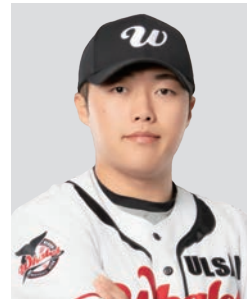
트레이너  
**김태훈**



투수  
**남 호**



투수  
**김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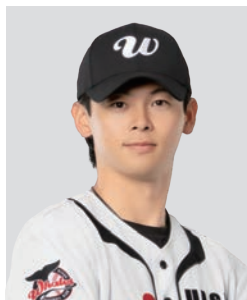
투수  
**조제영**



투수  
**박성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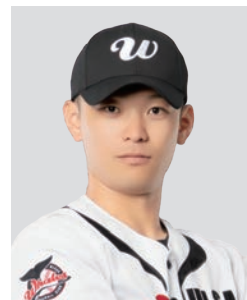
투수  
**최시희**



투수  
**나가 타이세이**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



투수  
**코바야시 주이**



투수  
**민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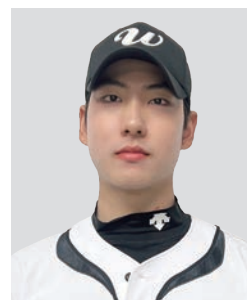
투수  
**이상연**



투수  
**김준우**



투수  
**진현우**



투수  
**서보석**



투수  
**이승근**



투수  
박태현



투수  
이서진



투수  
고효준



투수  
서영준



투수  
김의준



포수  
민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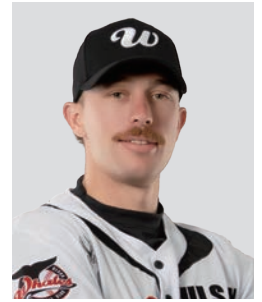
포수  
박제범



포수  
송현준



포수  
신지후



내야수  
알렉스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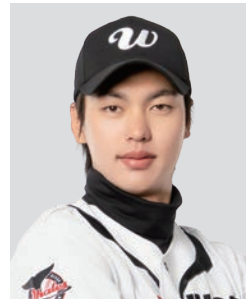
내야수  
김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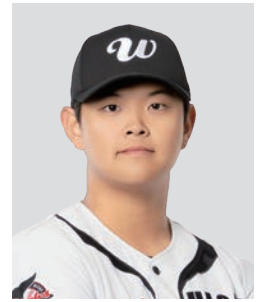
내야수  
최보성



내야수  
박민석



내야수  
신준우



내야수  
오현석



내야수  
이민석



내야수  
김성군



내야수  
전광진



내야수  
노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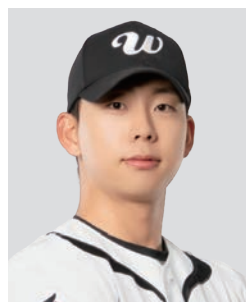
외야수  
변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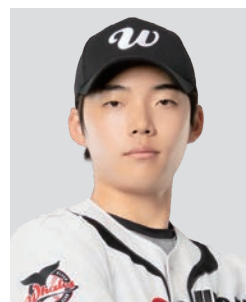
외야수  
김동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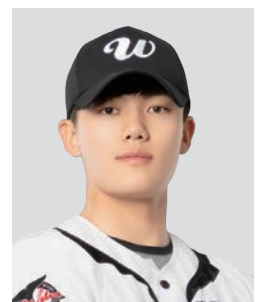
외야수  
예진원



외야수  
김시완



외야수  
박재운



외야수  
한찬희



# 산업화 시대의 향수 울산 원도심을 걷다

현대식 마천루의 화려함 뒤편, 1960~80년대 울산의 뜨거웠던 산업화 시대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세련된 고풍스러움 대신 '사람 냄새' 나는 산업화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울산 중구 원도심. 우리네 삶의 궤적이 켜켜이 쌓인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한 시계탑 사거리.

### 시간여행의 출발점, '시계탑 사거리'

“시계탑 앞 ○○다방서 보입시더.” 울산 원도심 여행의 시작은 단연 시계탑 사거리다. 1966년, 시계가 귀하던 시절 만들어진 이 탑은 울산 시민들에게 최고의 약속 장소였다. 현재의 시계탑은 1921년경 최초의 울산역이 자리했던 곳이다. 이를 기념해 돛형 구조물 위에 증기기관차를 본떠 만든 모형 기차를 설치했다.

시계탑사거리 중구 옥교동 277-1

문화의거리 중구 성남동 329-5

시립미술관 중구 미술관길 72

운영시간 화 ~ 일요일 10:00 - 18:00

이용요금 1000원 문의 052)211-3800

### 갤러리와 역사가 공존하는 '문화의 거리'

시계탑에서 북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수십 개의 갤러리와 소극장이 즐비한 문화의 거리가 나타난다. 이곳의 백미인 울산시립미술관은 현대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며 주변 갤러리들과 멋진 시너지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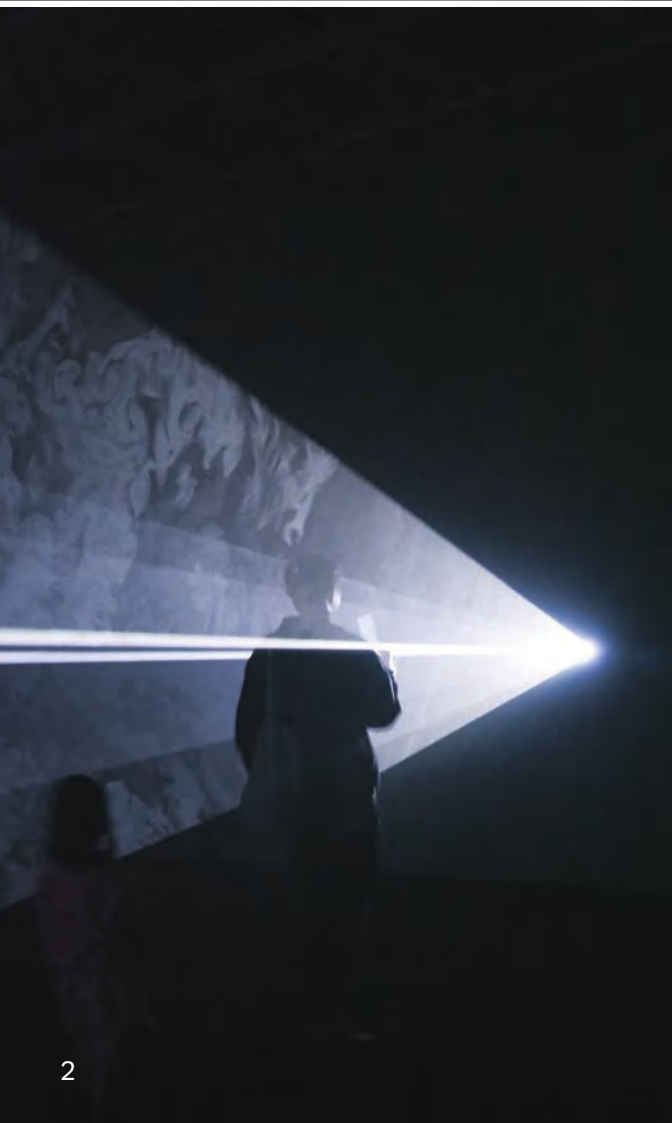
현대식 미술관 옆에는 옛 울산도호부의 수령이 공무를 처리하던 동헌이 있다. 동헌의 출입문 격인 가학루를 지나면

동헌 중구 동헌길 167

운영시간 6월 ~ 10월 09:00 - 22:00

11월 ~ 5월 09:00 - 21:00

이용 요금 무료 문의 052)290-4842





1, 2, 3. 일상에서 벗어나 예술적 감성을 충전하고 내면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울산시립미술관. 4. 주말에는 다양한 길거리 공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5. '마로니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최고급 일본식 여관이었던 학성여관을 리모델링했다. 오른쪽 좁은 골목이 '뚝딱길'.  
 6. 울산 큰애기 이야기로를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판.

내아와 부속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시립미술관 동쪽 울산초등학교 부지 옛 울산객사도 조만간 복원된다. 인근에는 1898년 울산임시우체사로 업무를 시작한 북정우체국도 있다. 조금만 걸으면 만날 수 있는 종갓집 예술창작소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자

전시·판매장으로 탈바꿈했다. 갤러리 옆 '마로니에' 간판을 단 옛 학성여관 건물은 1980년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곳으로, 내부의 일본식 건축 형태와 아늑한 중정이 과거의 시간을 품고 있다. 근처에는 여행자 복합문화공간인 '착한여행 52블루'도 자리하고 있다.

**북정우체국** 새스른해거리 34-9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문의 070-8670-0888

**종갓집예술창작소** 중구 중앙길 161  
 운영시간 화 ~ 금요일 10:00 - 21:00  
 주말 10:00 - 18:00  
 이용요금 5000원/1시간 문의 052)290-4843

**착한여행 52블루** 중구 중앙길 161  
 운영시간 화 ~ 금요일 10:00 - 21:00  
 주말 10:00 - 18:00  
 이용요금 5000원/1시간 문의 052)290-4843

### 좁은 골목에 새겨진 이야기, ‘뚝뚝길’과 ‘고복수길’

문화의 거리를 걷다 보면 발밑에 ‘뚝뚝길’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뚝뚝길은 격동의 산업화 시대에 성공과 좌절을 맞본 울산의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그 시절을 돌아본다는 의미로 시계 소리인 ‘뚝뚝’을 차용한 것이다. 과거로 가는 통로처럼 좁은 이 골목은 낮은 담장 사이로 옛 정원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길은 자연스럽게 ‘고복수길’로 이어진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일제강점기 대중의 마음을 달랠던 가수 고복수의 숨결이 벽화와 조형물로 되살아나, 골목마다 구수한 노랫가락이 들려오는 듯하다.

### ‘아지야’와 ‘큰애기’가 걷던 청춘의 길

산업화 시기 국가 경제를 일군 산업역군들이 퇴근 후 고단함을 달래던 ‘맨발의 청춘길’은 이 동네의 백미다. 골목 입구의 지도를 따라 걷다 보면 다채로운 테마 구역을 만날 수 있다.

음악존에서는 동작 감지 센서가 사람을 인식해 자동으로 7080 음악을 들려주며 추억을 환기하고, 영화존에서는 이소룡 벽화 등 고전 영화 세트장을 연상시키는 레트로한 풍경이 펼쳐진다. 패션존을 포함한 거리 곳곳에는 개성 넘치는 보세거리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걷는 즐거움을 더한다.

이 길의 주인공인 ‘울산 큰애기’는 1965년 히트 대중가요 속 주인공이자, 사려 깊고 인정 많은 울산 여성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캐릭터다. 이제는 울산 중구의 당당한 마스코트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 맨발의청춘길 중구 성남동 225-2





3




1. 타향살이가 새겨진 고복수노래비. 2. 시장의 꽃인 먹음직스러운 호떡. 3. 레트로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성남동 풍경.  
4. 동현에서 바라본 원도심의 야경.

4

날이 저물면 원도심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현대식 식당부터 수십 년 내공의 노포까지 선택지가  
다양하다. 좁은 골목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맛집을 찾아내는  
것은 원도심 여행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활기찬 에너지를 더 느끼고 싶다면 밤늦도록 시끌벅적한  
'울산 큰애기 야시장'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구도심과 남구를 연결하는 울산교 위에는 '울산  
세계음식문화관'이 개관했다. 탁 트인 강변 전망과 화려한  
도심 야경,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문화와 미식을 즐길 수 있다.

**울산 큰애기 야시장** 중구 번영로 329 중앙시장  
운영시간 수 ~ 일요일 18:30 - 23:00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중구 성남동 338 울산교 상부  
운영시간 11:00 - 20:00

 울산 원도심은 턱이 없고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하기에도 용이하다.





우즈베키스탄

EXORDIUM

천천히  
WATCH  
YOUR  
FOOD

울산교 위의 '울산 세계음식문화관'에서 낭만 가득한 강 위의 식사를 즐겨보자.

요즘울산

#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웃는 도시 울산에 어서오시개~

## 대한민국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표준 울산이 그리는 공존의 미래

울산광역시가 '산업수도'를 넘어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새로운 별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23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에 선정된 울산은 이제 반려 가구 1500만

시대를 선도하는 가장 앞선 도시로 평가받는다.

반려견 전용 시티투어 버스와 관광택시, 고래바다여행선 동반 탑승 등 울산만의 특색

있는 정책은 이미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울산의 중심에는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교육과 문화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애니언파크)'가 있다.

📍 북구 호계 매곡6로 108

운영시간 3월 ~ 10월 09:00 - 18:00, 11월 ~ 2월 09:00 -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보호자 및 반려견 별도 문의 052)286-2200

### 교육과 힐링의 복합 문화공간, 애니언파크

북구 호계동에 있는 애니언파크는 동물(Animal)과 사람(Human)이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아 탄생했다. 국비 포함 111억 원이 투입된 애니언파크는 반려동물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외 놀이터와 물놀이장은 물론, 반려견의 생태와 습성을 배울 수 있는 콘텐츠 전시관, 소·대형견이 분리된 자가 목욕실과 가족 쉼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실제 엘리베이터와 기실을 재현해 아파트 생활 예절을 익히는 실내 체험교육장은 애니언파크만의 차별화된 자랑거리다.





1



2

1. 대형견동반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반려견들과 보호자.
2. 넓고 쾌적한 소형견동반놀이터.
3. 놀이터에 들어온 순간 언제나 즐거워하는 반려견.



3

# 반려동물 문화 교육이 곧 경쟁력입니다

**성기창**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장

성기창 대표는 30년 경력의 임상 수의사이자 동물매개치료의 권위자다. '꿈이 있어 행복한 수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를 만나 울산 반려동물 문화의 비전을 물었다.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울산은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애견운동장을 만든 도시입니다. 애니언파크는 그 도전의 연장선이죠. 이곳은 단순히 반려견이 노는 곳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생명 존중을 배우고, 반려인이 올바른 양육 방식을 익히는 '교육의 전당'입니다. 살아있는 생명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 사회의 폭력이나 갈등을 줄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운영에 있어 가장 강조하시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차별화', '경쟁력'입니다. 전문적인 예절 교육과 행동 교정을 통해 반려인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저희 센터는 수의사 중심의 전문성과 교육 노하우를 결합해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울산을 명실상부한 반려동물 문화의 메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의 힐링 명소이자, 가장 앞선 반려동물 도시 울산의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또한 펫웰다잉(Pet Well-dying) 문화의 확산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의 삶의 마지막까지 존중하고 보호자가 건강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함께 사는 문화'를 넘어, '아름답게 함께하고, 존엄하게 이별하는 공존 문화'까지 완성하는 도시로 울산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 반려견과 함께 걷기 좋은 대표적인 산책 코스

반려견과의 산책은 단순한 배설이나 운동을 넘어선, 두 존재 사이의 정교한 대화이자 책임의 기록이다. 완벽한 산책을 위해선 견고한 H형 하네스와 돌발 상황을 통제할 2m 내외의 리드줄, 그리고 타인을 향한 최소한의 예우인 배변 봉투와 물티슈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반려견이 흥분하지 않도록 '평행 산책'의 감각을 유지하고, 인식표와 내장형 칩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잊지 말자. 당신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반려견의 호흡에 온전히 주파수를 맞출 때, 비로소 그 산책은 일상을 넘어선 하나의 고결한 의식이 된다.

오늘은 집 근처를 벗어나 더 긴 호흡으로 반려견과 함께 해보자.





# 1 간절곶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탁 트인 잔디밭과 바다 뷰 덕분에 반려견 동반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높다. 등대 전시관 내부를 빼고는 반려견과 함께 거닐 수 있다. 소망 우체통 앞에서 강아지와 함께 사진 한 장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

©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052)204-1000

## Ganjeolgot

Renowned as the first place to see the sunrise in Korea, Ganjeolgot is a popular destination for scenic drives thanks to its wide-open lawns and panoramic sea views. Except for the interior of the lighthouse museum, the entire grounds are pet-friendly. It is the perfect place to capture a memorable photo with your pet in front of the iconic 'Wish Postbox.'



# 2

## 태화강국가정원

울산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산책 코스다. 삼호에서 태화루까지 이어지는 대나무숲은 약 4km로, '십리대숲'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다. 숲길은 보행자 전용이라 자전거나 킥보드 걱정 없이 반려견과 나란히 걷기 딱 좋다. 해가 지고 나면 은하수길에 조명이 켜지는데, 낮과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 Taehwagang National Garden

This is the most beloved walking course among Ulsan residents. The 4km bamboo forest stretching from Samho to Taehwaru, known as 'Simnidaesup,' is a breathtaking sight. As the paths are reserved exclusively for pedestrians, you can enjoy a peaceful walk with your pet without the disturbance of bicycles or scooters. After sunset, the 'Milky Way Road' lights up, offering a magical atmosphere that contrasts beautifully with its daytime charm.

©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052)229-3147

# 3

## 애견운동공원

목줄 없이 마음껏 뛰게 해주고 싶은 날엔 여기가 답. 201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반려견 전용 운동시설로, 소형견-대형견 운동장이 따로 나뉘고 전용 수영장과 장애물 경기장까지 알차게 갖춰져 있다. 생후 4개월 미만은 예방접종 완료 후 입장 가능.

### Pet Exercise Park

The ultimate destination for an off-leash run with your pet. Opened in 2012 as Korea's first dedicated exercise facility for dogs, it features separate playgrounds for small and large breeds, a specialized swimming pool, and an agility course. Puppies under four months old may enter upon completion of their vaccinations.

© 남구 남부순환도로 209 052)256-6389



# 4

## 울산대공원

공업탑 인근에 자리한 울산 최대 도심공원이다. 벚꽃철부터 단풍 시즌까지 계절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산책로가 잘 이어져 있어 한 시간 코스를 잡기에 좋다. 장미원-동물원 등 일부 유료시설은 반려동물 출입이 안 되니, 반려견과 함께라면 야외 산책 동선 위주로 돌면 된다.

© 남구 대공원로 94 052)271-8816

## Ulsan Grand Park

Located near the Gongoptap area, this is Ulsan's largest urban park. The trails offer shifting seasonal beauty—from cherry blossoms to vibrant autumn leaves—and are perfectly suited for a relaxed one-hour walking course. While certain paid attractions like the Rose Garden and Zoo are pet-free zones, the extensive outdoor walking routes provide plenty of space for you and your companion.



# 5

## 대왕암공원

대왕암공원과 슬도·방어진항을 잇는 해안 코스는 울산에서 손에 꼽히는 산책 루트다. 해송 그늘길과 바다 풍경이 번갈아 나오고, 데크로 잘 정비돼 있어 강아지 발바닥 걱정도 덜하다. 바로 옆 일산해수욕장 백사장까지 이어 걸으면 코스가 한층 풍성해진다. 단, 바닷바람이 제법 강한 날엔 리드줄을 짧게 주는 게 좋다.

☎ 동구 등대로 140 052)209-3738

## Daewangam Park

The coastal route connecting Daewangam Park, Seuldo, and Bangeojin Port is one of Ulsan's most scenic trails. It features a harmonious blend of shaded pine paths and stunning ocean views, with well-maintained decks that protect your dog's paws. The experience is even more rewarding if you extend your walk to the nearby sands of Ilsan Beach. However, on days with strong sea breezes, keeping a short leash is recommended for safety.



# 6

## 매곡천 산책길

북구 매곡동을 흐르는 매곡천 따라 조성된 하천변 산책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 구간이 잘 정비돼 있고, 봄이면 하천 양쪽으로 꽃길이 펼쳐져 반려견과 나란히 걷기 좋다. 변화가를 피해 한적하게 산책하고 싶은 날에 딱 맞는, 북구 반려인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코스다.

## Maegokcheon Stream Trail

This charming riverside trail follows the Maegokcheon Stream in Buk-gu. With well-organized paths for both cyclists and pedestrians, it transforms into a beautiful floral walkway in the spring. It is a highly recommended "hidden gem" among local pet owners who prefer a quiet, tranquil stroll away from the busy downtown crowds.

☎ 북구 신천동 745-35 일대



## 반려동물친화도시의 위엄

# 반려동물 친화관광 프로그램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울산에서 신나는 축제부터 오붓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꼬리 사랑이는 행복이 가득한 프로그램을 즐겨보자.

## 펫캉스의 시작 반려동물 동반 관광택시 TAPXI

반려견과 함께 울산에 오고 싶은데, 차가 없다면? 걱정 마라. 울산에는 택시가 있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택시, 일명 'TAPXI'는 자차 없이 울산을 찾은 반려가족의 발이 되어주는 서비스다.

대왕암공원부터 태화강국가정원까지, 울산의 명소는 넓게 흩어져 있다. 택시는 그 사이 사이를 자유롭게 이어준다. 반려동물 동반 전문 교육을 이수한 기사단이 탑승 전 과정을 책임지니 낯선 도시에서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 펫캉스를 꿈꾸는 반려가족이라면, 울산행 여정의 첫 걸음을 택시로 시작해보자.

전화예약상담 052)255-1822, 052)255-1835



## 체류형 관광의 완성 반려동물 동반 숙박 할인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 중 하나가 숙소다. '반려동물 가능' 표시를 찾아 헤매다 지치지 않도록, 울산은 그 불편함을 제도로 풀었다. 반려생활 앱에서 사용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숙박 할인권 지원으로 울산 내 펫프렌들리 숙소를 훨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할인권은 단순히 여행 비용을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숙박업소들이 반려동물 전용 객실과 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반려가족이 진짜 편하게 묵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다. 펫프렌들리한 숙소만 모여있으니 숙소 검색의 피로를 더는 것도 장점. **예약 및 할인**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플랫폼 '반려생활' 앱



1. 작년에 울주군 솔개해변에서 열린 '울산 비치 멍스플래쉬'에서 패들보드 체험중인 참가자와 반려견.
2. 서울에서 기차타고 울산에 놀러온 반려견 동반 관광객 63팀의 '울산 멍트레인' 참가자와 반려견들. 함께 산책하기 좋은 '대왕암공원'에서 기념촬영



## 자연 속에서 나누는 깊은 교감 동반 생태관광 프로그램

울산 근교의 딸기밭, 배 농장, 그리고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반려견.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그림이다. 울산은 이 장면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동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딸기 따러 같이 가개'처럼 이름부터 귀여운 체험 프로그램은 보고 끝나는 관광이 아닌, 직접 손으로 만지고 수확하는 진짜 체험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올해만이 아니다. 지난 2025년에는 울산 명소 곳곳에서 반려견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미션 명파서블 울산', 반려동물 전용 열차를 타고 떠나는 '울산 땡땡트레인'도 운영했다. 해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더해지는 울산의 생태관광, 올해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해도 좋다. **일정 4월 중**

## 성숙한 공존의 장 반려동물 문화 축제

매년 가을, 태화강국가정원에 반려견과 보호자들이 모여든다. 바로 '울산 펫 페스티벌'이다. 반려인이든 아니든, 이 날만큼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다. 강아지들의 활기찬 움직임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운다.

페스티벌은 즐거움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올바른 산책 문화, 펫티켓 교육, 전문가 상담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도 빠지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도시가 해야 할 일을 울산은 축제 안에 담아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공존하는 문화, 울산이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정 10월 중**



# 반백년 울산의 맛과 멋을 품다

## 신정시장

울산 남구의 중심에 자리 잡은 신정상가시장. 1970년 문을 연 이래 50년 넘게  
울산 시민의 식탁을 책임져 온 대표 전통시장이다. 700여 개의 점포가 활기를 뿜어내는  
이곳은 울산 사람들의 히로애락이 서린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 남구 월평로 47번길 7 일원



1

### 행복주차장에서 시작하는 설레는 발걸음

신정시장 나들이의 시작은 신정행복주택 공영주차장이다. 넉넉한 주차 공간 덕분에 전통시장 방문이 한결 여유롭다. 차 문을 열자마자 어디선가 풍겨 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멸치 육수 향이 코끝을 간지럽힌다. 주차장을 나서 옷 수선집, 건강식품 판매점 등이 있는 좁다란 골목길로 접어들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묘한 설렘이 차오른다. 골목골목 아케이드 천장이 설치되어 있어 사시사철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다.

1. 깔끔하게 정돈된 신정시장 입구에는 넉넉한 주차공간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2. 가게 주인이 직접 고른 패션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2

### 홍두깨 소리 정겨운 '칼국수 골목'

골목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서자 탕탕 도마를 치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려온다. 신정시장의 명물, 칼국수 골목이다. 벌써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한 칼국수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1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식당 안에는 '호로록 호로록' 부드러운 칼국수 면발을 들이키는 손님들로 가득하다. "맛있어요?"라고 묻자 단박에 엄지를 치켜세운다.

### 김이 모락모락, 활력 넘치는 '국밥 골목'

칼국수 골목의 담백한 향을 지나면, 이번에는 묵직하고 진한 육향이 코끝을 압도한다. 신정시장의 또 다른 심장부, 국밥 전문 식당가다. 국밥 골목이라는 이름답게 커다란 가마솥이 가게 앞마다 걸려 있다. 가마솥 뚜껑이 열릴 때마다 하얀 증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골목 전체를 몽글몽글한 안개 속에 가뒀 버린다. 그 안개 사이로 탁탁 머릿고기를 떨어내는 상인들의 분주한 손놀림이 실루엣처럼 비친다. 도마 위에는 먹음직한 수육이 가득하다. 50대로 보이는 상인과 눈이 마주쳤다.

"새벽부터 사골을 고아 내야 진한 국물이 나와요. 우리 시장 국밥은 고기가 하도 푸짐해서 '국물 반 고기 반'이라니까요. 요즘처럼 찬 바람 불 때는 이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 보약입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가득하다. 뜨거운 뚝배기에 코를 박고 국물을 들이켜는 어르신부터, 정장 차림으로 이마에 땀을 송골송골 맺으며 '크으' 소리를 내뿜는 인근 직장인들까지 모두가 한 그릇의 온기에 기대어 있다. 갓 버무린 겉절이와 깎두기가 뚝배기 옆에서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한다.

1. 50년 전통의 돼지고국밥 골목. 가게마다 가마솥에서 요리해내는 돼지고국밥은 이 골목의 자랑이다.
2. 신정시장의 백미 중 하나인 칼국수.
3. 칼국수 면은 직접 홍두깨로 밀고 칼로 썰어 만든다.





### 장바구니 내려놓고 쉬어가는 곳, '고객 쉼터'

시장의 활기찬 북적임 속에서 잠시 다리가 무거워질 때쯤, 시장 중앙 인근 건물 2층에 마련된 고객 쉼터를 발견했다. 이곳은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신정시장만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다.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 장보기에 지친 시민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방금 산 따끈한 간식을 맛보기도 한다.

### 오감이 즐거운 풍성한 장터길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발길을 옮겨 수산물과 축산물이 가득한 골목으로 향한다. 은빛 비늘을 뽐내는 생물 갈치를 비롯한 싱싱한 생선들이 얼음 위에 나란히 누워 있다. 군데군데 선홍빛 소고기가 걸린 정육점 앞은 명절을 방불케 하는 활기로 가득하다. 그 사이로 보이는 수제 어묵과 닭강정, 수제 카스텔라 가게의 달콤한 향기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발길도 붙잡기에 충분하다.

아케이드 지붕 아래로 쏟아지는 활기를 뒤로 하고 시장을 나서는 길, 양손은 무겁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다. 대형 마트의 편리함도 좋지만 상인들과 눈을 맞추며 정을 나누는 신정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온기 덕분이다. 이번 주말, 가족의 손을 잡고 구수한 칼국수 한 그릇과 따뜻한 사람정이 넘치는 신정시장으로 나들이 한 번 어떨까.

1. 바다내음 물씬 나는 싱싱한 수산물들.
2. 다양한 먹거리들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3. 아케이드 지붕이 날씨를 막론하고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게 해준다.
4. 소복히 쌓인 추억의 옛날 과자들.





# ULSAN RISING PORT

운영중

운영시간: 09:30 ~ 17:30

(정공시간 제외)

## 실감 영상으로 즐기는 울산의 진면목

### 하늘 위에서 만나는 '꿀잼도시' 울산 '라이징 포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울산이 이제 '하늘길'을 통해 그 진가를 드러낸다.

울산박물관 1층에 자리한 도심항공교통(UAM) 체험 시설 '울산 라이징 포트'가 그 주인공이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전시를 넘어,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UAM 기술을 미리 경험하며  
울산의 명소를 비행하는 이 특별한 체험에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눈앞에 펼쳐지는 6분간의 환상적인 공중 산책

라이징 포트에 몸을 싣는 순간, 일상은 금세 환상적인 여행으로 탈바꿈한다. 5면을 가득 채운 몰입형 LED 화면이 생생한 현실감을 선사하고, 시뮬레이터는 실제 비행하듯 1m 이상 떠올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울산의 하늘로 안내한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초록빛 물결을 시작으로 선사시대의 숨결이 느껴지는 반구천 암각화, 영남알프스의 웅장한 능선을 지나 동해의 비경을 간직한 대왕암공원까지 이어진다. 실사로 구현된 실감나는 영상미는 마치 실제

UAM을 타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울산대교 위에서 터지는 화려한 불꽃쇼는 6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다.

####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 1만 명의 선택

'울산 라이징 포트'는 단순한 체험 기구를 넘어 예술적 가치까지 인정받았다.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울산의 세련된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렸다.

태화강 암벽을 형상화한 외관과 고래의 거품 그물을



시각화한 시뮬레이터는 디자인만으로도 하나의 볼거리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운영 7개월여 만에 누적 체험객 1만 명을 돌파했다. 경남 거창에서 방문해 1만 번째 탑승자가 된 한 관광객은 “울산의 주요 명소를 실제로 날아다니는 듯한 경험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 미래 산업도시 울산의 새로운 도약

이 시설에는 관광객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울산의 원대한 미래 전략이 담겼다. 울산시는 자동차 산업의 강점을 살려 UAM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CES 2024에서 선보인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이 시설은 울산이 UAM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첫걸음이기도 하다.

울산박물관은 앞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와 연계한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해 체험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어른들에게는 울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라이징 포트’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울산의 진면목을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장소 울산박물관 1층

소요시간 약 6분(동시 4인 탑승 가능)

이용요금 성인 10,000원 / 어린이·청소년 5,000원

울산 시민, 65세 이상 어르신, 군인, 해오름동맹 도시(경주·포항) 주민  
50% 할인

체험코스 태화강 국가정원 ▶ 반구천 암각화 ▶ 영남알프스 ▶ 대왕암공원 ▶  
울산대교 야경



2



3



# 과거 위에 미래를 세우다

## 체육·독서·청년지원·디지털교육·창업지원이 한곳에 모인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남구 신정동 종하이노베이션센터는 과거의 기억과 오늘의 필요를 함께 담아낸 공간이다. 이곳의 출발점은 1977년 문을 연 울산의 첫 실내체육관, 종하체육관이다. 오랜 세월 시민 곁을 지켜온 종하체육관은 재건축을 거쳐 지난해 지금의 종하이노베이션센터로 다시 태어났고, 현재는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만 9905㎡ 규모 안에 체육, 독서, 청년지원, 디지털 교육, 창업 지원 기능을 함께 품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부터 청년의 꿈, 창업가의 열정까지 한데 어우러진 종하이노베이션센터의 오늘을 들여다보았다.

### 시간을 잇다: 기억의 보관소 '기부자홀'

건물 1층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기부자홀'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1977년 부지 기부를 통해 체육관 건립의 초석을 다진 기부자의 숭고한 정신과 옛 종하체육관의 역사를 기록한 박물관이다. 디지털 방명록과 전시물을 통해 종하의 시간을 마주하다 보면, 이 센터가 단순히 새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울산의 자부심과 내력을 계승한 공간임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

1.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외부 전경. 2. 다양한 경기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종하체육관. 3. 기부자홀에 있는 종하체육관 아카이브. 4. 기부자홀에는 울산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1

1. 많은 도서와 책읽기 좋은 공간을 갖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2. 네트워킹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울산 스타트업 허브 입주기업 (주)코리아트레이드 김민석 부사장.  
3. 4층 '운당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2





### 일상을 채우다: 활기 넘치는 '중하체육관', '도서관'

1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하체육관은 과거의 상징을 현재의 생활 서비스로 연결하는 핵심 공간이다. 중하체육관은 979.9㎡ 규모에 280석 관람석을 갖춘 실내체육관으로, 농구와 배드민턴 같은 실내 체육경기뿐 아니라 학교·공공기관 행사, 문화행사·공연·전시 등 소규모 행사까지 운영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기능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울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다. 1층에는 어린이·유아 자료실과 함께 실감형 테마체험관, 창의학습체험존이 마련돼 있고, 2층에는 청소년·일반 자료실, 열린 스튜디오, 스마트 테이블존이 들어서 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 청년을 깨우다: 고민은 덜고 열정은 더하는 공간

3층은 울산 청년(19~39세)들의 해방구이자 성장판이다. 이곳에는 청년정책 종합안내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울산청년지원센터가 들어서 있다.

울산청년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U's(유쓰) 멤버십은 정책 정보 제공부터 청년라운지 주말 이용, 대관 서비스, 청년사업가 네트워크 1939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주거, 진로 및 취업, 창업, 법률, 노무, 세무, 금융, 문화예술, 청년정책 등 삶 전반의 고민을 다루는 1대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교육과 코딩 실무인력 양성 기능을 담당하는 '디지털배움터'와 '코딩교육장'도 자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미래를 열다: 창업 생태계의 중심

센터의 상층부(4~6층)는 울산의 경제 지도를 바꿀 스타트업 허브가 자리잡고 있다. 울산 스타트업 허브는 창업자와 기업, 투자자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혁신과 성장을 이야기하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중심이다.

4층에는 운당홀과 렉처룸, 3D테크샵,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5층에는 코워킹존과 입주공간이, 6층에는 U-STAR홀과 미팅룸, O.I. Station, 입주공간이 배치돼 있다.

중하이노베이션센터는 더 이상 과거의 유산이 아니다.

아이들이 책 속에서 상상력을 키우고,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며 자립을 준비하고, 창업가들이 세계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는 곳. 과거의 이름 위에 오늘과 내일의 가치를 덧입힌 이 공간은, 울산 시민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시의 생활 플랫폼'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것이다.





###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고3 수험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수험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수험생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장시간 밀집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입시 준비로 인한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워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학업 공백이 발생해 중요한 입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에 거주하는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매년 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 내 1회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종은 울산시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240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 2026년 모범장수기업 5개 사 선정

울산시는 '2026년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에 고도화학(주), (주)삼미정공, 고려기술(주), (주)엔티에스솔루션, (주)건일엔지니어링 등 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26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어 업력, 지역경제 기여도, 건설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실사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최종평가를 거쳐 이날 최종 5개사를 선정하게 됐다. 모범장수기업의 인증기간은 5년이며, '모범장수기업' 상표를 활용할 수 있고,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 받는다.

# 문화요일

매주 수요일, 일상이 되는 문화

### 수요일은 문화로 놀자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역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 45개소에서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정보, 전시 및 공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문화24' 누리집(www.ulsancultu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울산문화24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게시물을 등록하고 홍보할 수 있다.

### 기업 맞춤형 '2026 지방세 실무 책자' 발간

울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울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방세 관련 제도와 실무 정보를 정리한 '2026 지방세 실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궁금해하는 지방세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2026 지방세 실무 책자'에는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사항과 최신 사례를 반영해 납세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울산에 터를 잡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감면 등 지원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 세무조사 시 빈번하게 추정되는 사례와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불복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해 세무조사나 과세 처분에 직면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1년 이상 울산에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생백신을 1회 무료로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남구·동구·북구 거주 대상자는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울주군 거주 대상자는 울주군보건소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접종하면 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보건소에 구비서류와 접종 가능 의료기관 등을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된다.

###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공개

울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5,416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안)은 전년 대비 평균 1.14%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1.18% ▲남구 1.49% ▲동구 0.4% ▲북구 0.9% ▲울주군 1.16%의 증가폭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1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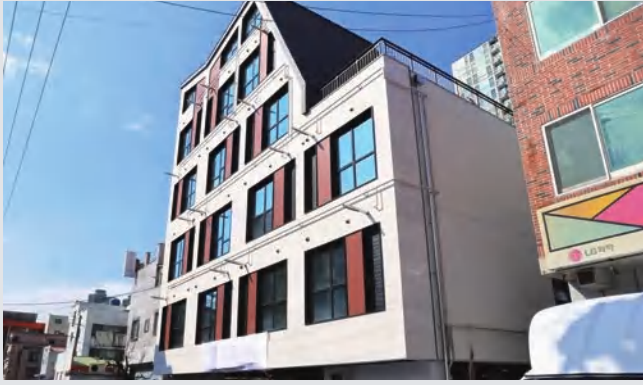


###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효과 '톡톡'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박물관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월평균 7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과 10월, 11월에는 관람객이 각각 1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 2008년 5월 개관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관람객 수가 156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람객 증가도 눈에 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2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람객 증가에 발맞춰 암각화박물관은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특별기획전 '세계유산: 우리가 사랑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오는 5월 7일까지 연장 개최한다.

### 민생침해범죄 특별기획수사 실시

울산시는 오는 5월 초까지 부동산, 원산지 표시, 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기획수사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글이 증가하고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어나는 한편 편의점 등 상비의약품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는 단속 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대상 업소의 협조와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업소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해 위법사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남구, 북구에 청년형 유홈 준공

남구 삼산동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의 질까지 높여줄 고품격 ‘청년형 유홈(U home)’이 들어섰다.

‘유홈(U home) 백합’은 지상 5층, 연면적 979.74㎡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23호가 공급된다. 사업비는 약 47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착공 후 올해 2월 준공을 마쳤으며, 3월 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유홈(U home) 양장’은 북구에 처음 공급되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북구지역 내 주거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상 5층, 연면적 620.39㎡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18호가 공급된다. 사업비는 약 39억 원이 투입됐고, 지난해 2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을 마치고 4월 입주를 시작했다.

### 대곡박물관 ‘우리는 반구대로 탐험가’ 운영

울산대곡박물관은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우리는 반구대로 탐험가’를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구대로 일대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1차 특별기획전 ‘반구대로 37.956km-자연이 굿고, 사람이 있다’와 연계해 진행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눈높이에 맞춘 특별전 해설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한 그림그리기 등 창작활동을 펼치는 체험 중심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4월 18일(토), 5월 16일(토), 6월 13일(토), 7월 18일(토) 각각 다른 체험으로 구성되며, 오후 2시와 3시 30분 하루 2차례 운영된다. 회당 정원은 20명이며,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다. 특히 참가자들이 완성한 체험물은 박물관에 일정 기간 전시돼, 박물관에 내가 만든 작품이 전시된다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4월 교육 접수는 4월 7일(화) 오전 9시부터 울산모아 통합예약(ulsan.go.kr/y/yes/main.do)을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 마감된다.



###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본격 착공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전문 과학문화시설이 울산에 건립된다. 울산시는 3월 19일 오후 3시 신정동 931-52번지 일원에서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탄소중립을 주제로 전시·체험 공간과 교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 과학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남구 신정동 931-52번지 일원, 총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농번기 ‘임대농기계 긴급출동반’ 서비스 운영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번기를 맞아 증가하는 농기계 임대 수요에 대응하고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긴급출동반’을 운영한다.

최근 봄철 영농기 임대 농기계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 작업 중 고장 및 조작 미숙으로 인한 출동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의 참여 확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2인 1개 조로 구성된 긴급출동반을 운영해 임대농기계 고장 수리를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선다. 또 올바른 조작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토요일 임대 수요 증가에 대응해 휴일인 토요일에도 긴급출동반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울산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업무협약 체결

울산을 찾는 관광객과 비즈니스 고객들이 호텔 로비에서 울산의 매력을 담은 고품격 기념품을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된다.

라한호텔 울산 내 1층 로비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인 ‘울산 굿즈 스토어’를 설치하고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

이 매장에는 호텔 투숙객들이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울산의 문화를 접하고, 품격 있는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라한호텔 울산은 매년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울산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을 후원하고 관광상품 전시·판매에 대해 협력한다.

이는 민간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 모형(모델)으로, 우수한 지역 기념품을 육성하고 창작자들에게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무대···국비 공모 공연 확정

울산문화예술회관이 2026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우수 공연들이 올해 울산에서 상연된다.

먼저 국립합창단 주관 ‘국립합창단 전막 공연 유통 사업’ 선정으로 대형 합창 공연 ‘카르미나 부라나’가 울산을 찾는다.

오는 8월 28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는 국립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무용수 등 약 200명이 출연한다.

합창·관현악·무용이 어우러진 대규모 무대로 총사업비 1억 4,400만 원이 투입된다.

음악뿐 아니라 연극 공연도 이어진다. 오는 6월 20일 마당극 ‘쪽빛향훈’을 시작으로 9월 11일 ~12일 뮤지컬 ‘배니싱’, 10월 17일 연극 ‘늘근도독이야기’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연 문화를 되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울산시립미술관 수작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수작미술관(秀作美術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당일 관람료는 무료로 운영한다.(일부 기획전 제외)

특히 미술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오는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시대지필》 전시를 중심으로 약 70분간 해설이 진행된다.

질의응답 시간도 포함해 관람객과 보다 밀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 7월부터 문수체육관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국민체력인증센터 신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울산시는 연간 1억 2,000만 원 규모의 운영비와 인건비, 첨단 체력 측정 장비 등을 지원받게 돼 안정적인 센터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문수체육관에 국민체력인증센터가 개소할 예정이다.

문수체육관은 공간 확보와 접근성, 운영 여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국민의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평가해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기관이다. 만 4세~6세 유아기와 만 11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다시 찾아온 봄, 그 눈부심을 위하여

3월 중순의 어느 날, 창밖의 풍경을 살필 겨를도 없이 새벽 출근길을 서둘렀다. 집에서 나설 때만 해도 간간히 훑날리던 빗방울은, 어느새 머리카락과 점퍼 위에 이슬처럼 맺히더니 이내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툭툭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거라던 일기예보를 애써 외면했던 대가치고는 꽤 다정하다. 이 날의 시린 비는 겨울날의 빗방울과는 결이 다르다. 피부에 닿는 날카로운 한기 대신, 겨우내 쫄쫄 얼어붙었던 땅의 긴장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는 부드러움이 배어 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 지났다. 빛과 어둠이 완벽하게 평형을 이루는 이시점에서, 사람의 몸 또한 자연의 섭리를 따라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되찾는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땅의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존재는 이 시기에 본능적으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 단단한 껍질을 뚫고 올라오는 연약한 새순의 몸짓이나, 새벽잠을 떨치고 일터로 향하는 나의 무거운 발걸음이나, 결국은 거대한 생명의 리듬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은 야속하게도 벌써 4월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하지만 세월의 빠름을 한탄하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질 찬란한 봄 풍경을 기다리는 설렘이 앞선다. 이제 곧 남녘에서 올라온 동백과 매화가 터뜨린 꽃망울을 시작으로, 목련이 하얀 등불처럼 밤길을 환하게 밝히고 나면 벚꽃이 화려한 봄 축제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벚꽃을 떠올리면 기억은 순식간에 30대 중반 어느 출장길의 풍경으로 나를 데려간다. 일본 나고야성의 육중한 성벽을 배경으로 구름처럼 드리워졌던 아름답고 빛나무들. 바람이 불 때마다 함박눈이 내리듯 훑날리던 그 '꽃비'는 내 생의 강렬한 잔상 중 하나로 남아있다. 당시엔 일상의 무게에 눌려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꽃비는 허무하게 지기 위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절정의 순간을 세상 모든 이와 아낌없이 나누기 위해 훑날리는 축복임을 말이다.

머지않아 강산은 파릇파릇한 연둛빛 잎들로 채워질 것이다. 눈을 호강하게 만들 그 싱그러운 수채화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열린 미소가 번진다. 문득 독일 볼프스부르크 강변에서 마주했던 수양버들의 늘어진 가지 끝, 그 아련하고 투명한 초록의 빛깔이 겹쳐진다. 이국땅에서 느꼈던 낯설지만 따듯했던 위로가 지금 이곳의 공기 속에서도 느껴진다.

이렇듯 세월이 흘러감에 불안하고 막막했던 젊은 날의 기억보다는 매년마다 바뀌는 계절을 이제는 오롯이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것이 내 마음을 더 평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그 속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위안이 된다.

오늘 대지를 적시는 이 비가 전혀 밋지 않다. 오히려 마른 땅을 적시고 잠든 생명을 흔들어 깨우는 자연의 자비로움에 고개가 숙여진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묵묵히 견뎌낸 이들에게만 허락된 이 '떨 시린 비'를 기꺼이 맞으며, 나는 다시 한 번 힘차게 기지개를 켜다. 내 안의 봄도, 이제 막 눈부신 꽃을 피울 준비를 모두 마쳤다.



**권오용** 복구

3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고  
일상의 감동을 글로 남기고 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을 기다립니다.

<우리울산>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작품을 기다립니다.  
채택되신 분께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과 함께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가능 작품: 시, 수필, 편지, 사진, 그림 만화 등



## 구독 신청하세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다채로운 소식과 정보가 담겨 있는  
울산광역시 소식지 '우리울산'.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 후기를 보내주세요. <우리울산>에 실어 드립니다!

'우리울산'을 읽고 독자 후기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알찬 '우리울산'이  
만들어집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을 기다립니다

봄호 마감 : 2026. 5. 20.  
보내실 곳  
- E-mail : kim@takemdesign.com  
- 성명, 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문의 : 052)227-1400



## 울산사랑퀴즈

국내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프로 야구단이 없던  
울산에 지자체 주도 시민구단인 '울산○○○'가  
탄생했다. ※ 4페이지 참고

퀴즈의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1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1만 원)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시정소식지

# 우리울산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편리하게  
구독 신청 | 퀴즈 이벤트 | 독자 후기에 참여하세요.  
5월 20일 마감 문의: 052)227-1400



**우리의 리그가 시작된다**  
**우리의 자부심이 펼쳐진다**

